

KBI 연구 04-11

2004 이슈

2000~2004년 지상파TV의 편성 동향 분석

이동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1. 서론

방송은 공익을 실현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최창섭, 1992 ; 김 규, 1994). 이를 위해 방송은 사회의 공적 가치의 유지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여러 계층의 이익과 관심, 견해가 개별 프로그램에 고루 반영되도록 다양성과 균형성, 공익성을 갖추어야 한다(김규, 1994 ; 최영목, 1997). 더불어 방송사는 공적 요구를 실현하면서 타 방송사 또는 매체와의 경쟁 속에서 시청자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경영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한다(한진만·박천일 외, 2000).

이렇게 방송에서 공공성과 상업성이라는 상반된 요구가 공존하면서 현실화되는 지점이 바로 ‘편성’이다(Howard & Kievman, 1983 ; 김 규, 1990 ; 홍기선, 1997). 편성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구이자 경쟁력 강화와 시청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성과 상업성의 공존을 통해 드러나는 편성의 양면성은 양쪽을 모두 고려해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방송사에 지워왔다. 봄, 가을 정기 개편 때마다 방송사가 공공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시청률 지상주의라는 멍에를 짊어져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편성에 대해 방송사나 규제기관, 학계, 시청자단체가 견해 차이를 보여 온 것도 편성의 양면성에 기인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편성에서 공익성과 상업성은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체들은 편성의 양면성에 대해 양립된 입장을 가져온 것이다(이재진, 2004. 2 ; 이동후, 200. 6). 예를 들어, 방송사는 경영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해 온 반면, 규제기관이나 시청자단체는 이를 상업주의적, 시청률 지상주의 편성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이러한 견해 차이는 방송 편성 평가에서 비판의 현실성 부재라는 문제점을 낳았다(방송영상산업진흥원 뉴스워치, 2003, 2004). 더군다나 최근 방송법 시행령의 교양, 오락 부문 편성 비율 가운데 교양 편성 비율 30% 하한선에 대한 삭제 방침과 프로그램 심의 규정의 변경,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을 앞둔 방송 평가 관련 논란 등은 지상파TV의 편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편성 관련 현안들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논의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의 현실성과 논의 결과물의 실용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상파TV의 편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뤄져 왔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최근 5년 동안 9차례 개편에서 지상파TV의 편성이 어떠한 패턴을 보여 왔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내용을 갖는다.

첫째, 지상파TV의 편성 패턴을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차원에서 채널 간 비교 분석함으로써 2000년대 들어 최근의 편성 동향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2000년 봄 개편 ~ 2004 봄 개편 사이의 9차례 개편의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 합계와 시기별 동향을 살펴보았다. 2000년 봄 개편 ~ 2004년 봄 개편 사이의 누적 편성 합계를 살펴 본 것은 2000년대 들어 최근 5년 동안의 편성 동향을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지 않는 전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셋째, 같은 기간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 세부 장르별 누적 편성 합계와 시기별 동향 비교 등을 살펴보았다. 교양 프로그램을 시사교양, 오락교양, 문화교양, 교육교양, 생활교양 등으로 나누고, 오락 프로그램은 드라마, 영화, 스포츠, 퀴즈/게임쇼, 애니메이션, 오락정보, 음

악쇼 등으로 나누었다.

## 2. 다매체·다채널 시대 지상파TV 편성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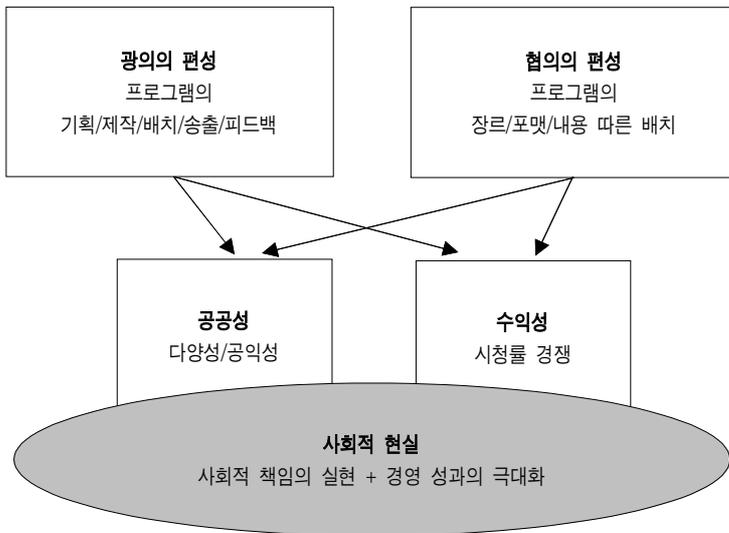
### 1) 경쟁 환경 속의 방송 편성의 개념 정의

방송 편성은 개별 프로그램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운용체제로 방송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과 프로그램의 시간적 배치에 초점을 둔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한진만·박천일 외, 2000 ; 유재천·한진만 외, 2004). 넓은 의미로 보면, 편성은 방송 프로그램의 명칭, 성격, 분량, 배치 등을 계획하는 행위로부터 그 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실제 제작 행위 그리고 운행과 경우에 따라서는 송출까지를 포함하는 행위까지 확대된다(김 규, 1990). 마찬가지로 편성을 방송 행위의 방향과 폭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단위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작업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김우룡, 1987). 유재천 역시 이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완성시키는 행위의 전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제반 조건과 송출에 대한 일체의 배열 및 운행까지를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유재천, 1983).

편성에 대한 넓은 의미의 접근은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시간적 배치, 송출 등의 전 과정을 종합한 것으로 방송사의 방송 행위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경우에 편성은 방송 경영 행위인 동시에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여기서 타 방송사와의 시청률 승부에서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편성과 공공성이 반영된 편성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편성 안에 모두 담겨야 하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한편, 편성에 대한 좁은 의미의 예로 김 규는 편성을 프로그램의 주제와 형식, 방송시간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 규, 1994) 국내 방송법 제2조에서 “방송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도 편성의 구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협의의 편성은 프로그램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 결정이나 제작 단계 이후를 포함하지 않고, 주제와 형식 및 시간 결정에 해당하는 행위, 즉 프로그램의 기획과 배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김 규, 1994 ; 한진만·박천일 외, 2000).

좁은 의미의 편성은 프로그램의 장르와 성격, 포맷, 내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효율적인 시간 배치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 등의 전 단계는 포함되지 않으며, 제작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경쟁력 있는 방송 스케줄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방송사는 경쟁 채널과의 시청률 다툼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줄때 편성, 구획 편성 등의 정밀한 편성 전략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주시청시간대에 오락 프로그램만을 집중 배치하거나 시청률이 낮은 교양 프로그램을 심야시간대로 빼거나 하



(그림 Ⅲ-1) 방송 편성의 개념적 현실  
 는 등의 시청률 중심 편성 전략은 시청자의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편성의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거시적으로는 방송 운용 행위 전반서부터 협소하게는 프로그램의 배치에 초점을 둔 행위로 정리된다. 중요한 것은 방송 편성의 개념 환경이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타 채널과의 시청률 경쟁이라는 경영 차원이 모두 담겨진 현실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경쟁 중심 방송 환경에서 편성이 가진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공성과 시청률이라는 상충 관계(trade-off)를 가지고 있는 이질적 요소간의 조화점을 찾는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2) 방송 편성의 이념과 다양성

방송 편성 행위는 일정한 지향 가치를 가진다. 흔히 이것을 편성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는 편성 행위가 이뤄지는 기본 토대가 된다(홍기선 외, 1998). 즉 편성은 편성 이념이라는 기본 방침을 토대로 이뤄지며, 여기에는 방송 이념과 방송 경영철학 등과 같은 거시적 가치 서부터 프로그램 개별 장르의 시청자 동향, 제작 현장의 현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현실 차원의 전략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김 규, 1990).

편성 이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공공성과 다양성, 균형성 등으로 압축된다(김춘옥, 2001).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 공유성, 제한성, 동시 공개성 등의 매체 특징 때문에 국민의 이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편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할 때, 강조되는 것이 바로 편성의 공공성이다(최창섭, 1985). 그리고 방송이 사회 각 분야의 이익을 고루 대변하고 균형 있게 표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양성과 균형성이 편성의 기본 이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한진만·박천일 외, 2000). 이와 관련해 최창섭은 다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수계층 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송 편성의 원칙이 수립될 것과 동시에 자율화, 민주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최창섭, 1992). 즉 불특정 다수 지향 중심의 시청률 경쟁을 탈피하고 특정 소수 집단의 계층적 관심과 필요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폭넓게 개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방송법에도 편성의 중요한 원칙들을 밝히고 있다. 방송법 제6조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을 보면, 우선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힘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취향과 견해를 편성을 통해 고루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5항에서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수 계층의 반영 또한 중요한 편성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 교육 기능 신장과 유익한 생활 정보 확산·보급,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등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방송 편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다. 방송 편성 이념을 정리해 보면, 지금의 복잡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보편타당한 절대적 방송이념을 확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은 일반 시청자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경험 영역을 확대시키며, 국민 이익의 수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향 가치일 것이다(김 규, 1990).

결국 방송 편성의 이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방송은 공공자원인 전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적 가치들을 실현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실현이 가장 큰 목표일 것이며(최창섭, 1985),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관심사가 반영되도록 다양성을 가져야 할 것과 그것이 양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성을



〈그림 Ⅲ-2〉 방송 편성 이념의 차원

유지해야 하며, 특히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견해가 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다매체·다채널 상황의 급속화와 더불어 사회의 다양화·복합화·다층화에 따라 문화적 취향 및 생활양식의 다변화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수용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양성의 중요성은 균형성과 공정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견해와 취향에 대해 편견 없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방송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방송 편성에 프로그램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성의 다양성은 가장 기본적인 이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방송 편성 원칙과 이념에도 대부분 다양성이 언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방송법 제69조 1항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편성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69조 2항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3항에서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

- (a) 공공 서비스로서 정보와 교육, 오락을 제공해야 한다.
  - (b) 영국 내 드라마, 코미디, 음악, 영상과 예술, 문화적 활동의 다양성 등을 촉진, 지원하며 반영해야 한다.
  - (c) 영국과 해외의 뉴스와 시사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영국 각 지역과 국가 차원의 논의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신뢰성 있고, 불편부당한 취재 보도를 포함해야 한다.
  - (d) 폭넓은 범위의 스포츠를 비롯한 기타 레저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e) 교육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문가 프로그램, 종교와 사회 이슈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 관련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 (f) 어린이와 청소년을 고려한 높은 수준의 창작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g) 지역과 전국 차원의 국민생활과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h)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런던 이외 영국 각 지역과 사우스이스트 등의 시청자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적절한 비율로 전국 방송에서 제공해야 한다.
- (※출처: BBC Agreement, <http://www.bbc.co.uk>)

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의 편성 조항을 정리해 보면,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편성권을 보장하면서도 방송사가 일반 국민의 공적 필요를 충족케 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가치들을 고루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영국 BBC의 칙허장(Royal Charter)을 보면, 편성의 다양성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정보와 교육,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담겨져 있으며, 이를 BBC 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BBC 협정서는 칙허장과 함께 BBC 운영의 토대 역할을 하는데, 이 협정서에는 정보와 교육, 오락 분야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BBC는 1996년 ‘시청자와의 약속(Our Commitment to you: BBC statement of promises to viewers and listeners)’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BBC의 편성 방침이 채널별로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는 TV와 라디오 각 채널을 고유의 특징을 살려 모든 시청자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할 것을 밝혔다. 예를 들어, BBC1은 보편성을 강조해서 모든 연령층과 생활양식을 포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하고, BBC2는 전문적인 관심을 가진 시청자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모험적인 시도나 예술의 보호, 새로운 재능의 육성 등의 역할도 담당한다는 것이다.

### 3) 편성 다양성의 실현

편성 이념을 실제화·구체화하는 방식들의 총합이 바로 편성 목표이며,(김 규, 1990 ; 홍기선 외 1998) 따라서 현실적으로 편성의 목표는 방송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방송 제도와 운영 철학, 해당 방송사의 성격(예를 들어, 공영 방송사 또는 민영 방송

사)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 구현’이라는 공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의 극대화’라는 상업적 가치의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홍기선 외, 1998). 학자들이 지적하는 목표에도 편성 이념이 구체화·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유의선은 편성이 ‘공익 구현’, ‘시청자 확보’,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를 가진다고 지적한다(유의선, 1995).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충족케 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여 시청률을 높이는 성과를 편성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한진만 역시 방송 편성의 목표가 국가나 사회가 추구하는 방송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시청자가 특정 방송국 또는 채널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며, 나아가 최대한의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 순서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한진만, 2000).

하워드와 키프만(Howard & Kievman, 1988)은 편성의 목표를 최대한의 수용자 확보를 위한 경쟁적 순서 마련, 둘째, 프로그램의 균형 공급을 통한 수용자의 다양한 취향 충족, 셋째, 보도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 등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공, 넷째, 방송사의 호의적인 이미지 형성 등에 두고 있다. 방송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통해 여러 시청자 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공공적 차원의 효과도 있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자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의 호의적인 시청 행태를 형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조성호는 편성의 현실 측면을 강조해서 시청자의 흐름(audience flow)의 유지를 통해 최대한의 시청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본다(조성호, 1998). 인접 효과(adjacency effects), 반복 시청(repeat viewing), 채널 충성도(channel loyalty) 등의 시청자 유인책을 통해 시청자의 흐름을 잡아 특정 채널에 잡아둠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청률을 높인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은 방송 편성을 방송 이념이 구체화되는 현실 단계의 전략이라고 보았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자 행태에 대한 고려 없이 고립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시청자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편성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시청자들의 공적 요구의 반영을 위해 개별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편성하는 수동적 편성이 아니라, 편성을 통한 시청자 복지의 적극적 확대라는 점에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각이다.

현실적으로 방송 편성을 국가나 사회의 목표, 국민의 복지 증진, 문화수준의 향상, 언론 신조와 경영 철학 같은 근본이념을 기반으로 사회성과 기업적 이윤성의 조화 상태를 위한 방송사의 노력이라고 할 때(김 규, 1990), 시청자 확대라는 목표가 무작정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4) 지상파TV 편성의 다양성

다매체·다채널 환경에서 지상파TV의 다양성은 ‘계몽적·당위적 다양성’이 아니라 ‘자율적·능동적 다양성’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계몽적 다양성이라 함은 보도, 교양, 오락의 분리된 편성 비율만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시청자의 취향을 고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흐름은 방송법 시행령 내에서 보도의 편성 비율 항목을 없애고 교양 부문도 삭제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사의 시청시간대별 편성 장르의 획일화나 편중화 등의 현상은 여전히 계몽적이고 당위성만을 강조한 비현실적

인 다양성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략적으로 패턴화 된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방식은 시청자들의 시청습관과 성향을 고립화, 파편화시킴으로써 방송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 구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자율적·능동적 다양성은 시청시간대의 고정적 편성 패턴을 깨 적극적인 다양성 구현을 말한다. 다수의 문화적 취향 중심 속에서 소수의 문화적 취향을 배려한다는 소극적 차원의 다양성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새로운 문화적 취향을 개발함으로써 다양성의 차원을 끊임없이 확대해가는 노력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다양성은 공익의 실천 방법으로 방송사간 또는 방송사 내 편성상의 무한한 질적 상이성을 일반화된 형식으로 반영한 개념이다. 즉 편성의 다양성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김 규 외, 1991). 구체적인 다양성의 실현 차원으로는 △실체적 다양성, △유형의 다양성, △배열의 다양성, △형식의 다양성, △공정한 자원 배당의 다양성, △수용자의 다양성, △정성적 다양성 등이 있다(Blumler, 김 규 외, 1991 재인용). 프로그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성, 반영된 내용의 인구사회학적 다양성, 아이디어와 의견의 다양성 등(Napoli, 강명철, 2004 재인용)과 장르적 다양성이 포함된다(Dominick & Pearce, 강명철, 2004 재인용).

방송사가 편성을 통해 상반된 두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편성 전략의 마련이 요구된다(조성호, 1998) 즉 방송사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편성의 과학화를 실현해야 하며 더불어 제반 여건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첫째, 방송사 내부적으로 편성의 과학화를 위한 편성 관련 전반 데이터의 체계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둘째, 방송사 외부적으로는 관련 규제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프로그램 전반의 누적적인 편성 동향과 시청자의 시청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단기 관점의 편성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규제 기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사가 차별화된 편성을 통해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일관적인 규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편성 동향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분석을 전제로 이러한 작업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방송사 입장에서 객관적, 체계적인 편성 전략을 개발하고 규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규제를 통해 공공성과 다양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기본 토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III-1〉 프로그램 유형 분류표

유형	세부 유형	특성
보도	뉴스	일반 뉴스 및 보도 프로그램
교양	문화교양	일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오락교양	에듀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형 프로그램
	생활교양	생활경제, 건강정보, 레저/여행정보, 가족대상 교양물
	교육교양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시사교양	각종 시사다큐 및 PD저널리즘 프로그램
오락	드라마	일반 드라마(일일드라마, 주말드라마, 단막극 등)
	버라이어티쇼	연예인 출연자 중심의 복합 구성 프로그램
	스포츠	스포츠중계 및 재방송 편집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어린이/유아 대상 만화영화
	영화	정규 편성 극영화, 외화시리즈
	오락정보	게임정보 프로그램
	음악쇼	각종 가요 쇼 및 순위 프로그램
	코미디쇼	개그와 코미디 포맷 프로그램, 시사 코미디 포함
	퀴즈/게임쇼	각종 퀴즈 프로그램
	토크쇼	연예인 출연자 대화 중심의 오락 프로그램
	기타	평일 오전(KBS2), 주말 오후 재방송 프로그램 및 스포츠 중계

### 3. 분석 방법

#### 1) 분석의 초점

2000년 봄 개편 ~ 2004년 봄 개편에 이르는 9개 개편 시즌의 편성 동향을 종합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TV의 2000~2004년 사이 9개 개편 결과로 나타난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에는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가?

둘째, 지상파TV의 2000~2004년 사이 9개 개편 결과로 나타난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가운데 교양 프로그램 편성에는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가?

셋째, 지상파TV의 2000~2004년 사이 9개 개편 결과로 나타난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가운데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에는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가?

####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0년 봄 개편 ~ 2004년 봄 개편 사이의 모두 9차례 개편으로 이뤄진 주간 편성이다. 9차례의 주간 편성을 대상으로 각 프로그램의 장르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편성 동향에 나타난 편성 패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 분석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측 시각을 반영하였다. 2003년 가을 개편과 2004년 봄 개편 관련 방송사측 개편 프로그램 분류 안에 포함된 시각과 연구자의 시각을 절충하여 분석 기간 내 모든 프로그램들을 재분류하고 여기에 다시 연구자가 재조정을 가하는 방식으로 개별 프로그램들을 분류·조정하였다.

〈표 Ⅲ-2〉 지상파TV의 2000년 이후 개편에 따른 주간 방송시간

채널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6,285	6,325	6,890	6,820	7,090	7,285	7,275	7,305	7,275
KBS2	6,280	6,620	7,070	6,990	7,340	7,480	7,345	7,295	7,305
MBC	7,165	7,250	6,985	7,045	7,080	7,235	7,225	7,235	7,235
SBS	6,830	6,965	7,190	7,105	7,145	7,305	7,305	7,305	7,315

9개 개편의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에 나타난 패턴을 비롯해 교양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패턴을 살펴보기 위한 개별 프로그램 유형 분류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최근의 교양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의 모호함을 반영해 문화교양, 오락교양, 생활교양, 시사교양, 교육교양 등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는 위와 같다.

#### 4. 지상파TV의 프로그램 편성 동향

##### 1) 지상파TV의 방송시간 동향

2000년 봄 개편 ~ 2004년 봄 개편까지 지상파TV 4개 채널의 주간 방송시간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KBS1, KBS2의 주간 방송시간은 6,000분대였고, MBC와 SBS는 7,000분을 넘거나 육박했으며, 2001년부터는 4개 채널이 모두 7,000분대에 근접하거나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시간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 온 특정 장르의 집중 편성은 방송시간의 증가와는 상관없이 편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실현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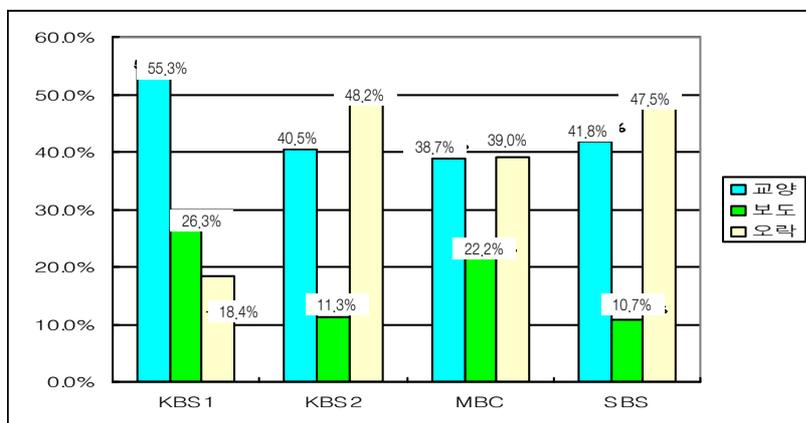
##### 2) 2000~2004년 지상파TV의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 ①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량 및 개편 시즌별 동향

2000년 봄 개편 ~ 2004년 봄 개편까지 이뤄진 9차례의 개편 동안의 프로그램 편성을 보도, 교양, 오락 부문별 누적 합계와 개별 시즌별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9개 시즌 동안의 누적 편성량을 보면, 지상파TV 4개 채널 가운데 KBS1은 교양, 보도, 오락의 순서로 나타났다. KBS2와 MBC, SBS는 오락, 보도, 교양의 순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9차례의 편성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양 비중은 KBS1이 55.3%로 가장 높았고, 오락은 KBS2가 48.2%로 가장 높았다. 보도는 KBS1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개편에 따른 편성 동향을 보면, 4개 채널이 각각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KBS1은 9개 시즌 동안 교양, 보도, 오락의 편성 비중을 보이면서,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그림 III-3〉 2000~2004년 지상파 TV의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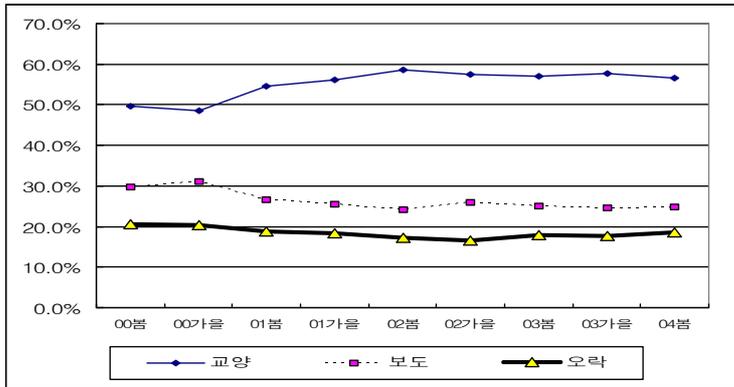
비중이 소폭 늘고 보도가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KBS2는 전체적으로는 오락, 교양, 보도의 편성 비중을 보였으며, 2003년 가을부터는 교양의 편성 비중이 늘어나 오락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양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 모두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2년 봄 개편을 정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후 2003년 가을 개편 때,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량이 오락 프로그램을 넘었고, 2004년 봄 개편 때는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반면, MBC는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의 차이가 9개 시즌 내내 5%를 유지하였다. 전체적인 편성 비중은 2000년 봄과 2001년 봄, 가을 개편 때 교양, 오락, 보도의 편성 순서를 보이고 나머지 시즌 동안에는 오락, 교양, 보도의 순서를 보였다. SBS는 2000~2002년 사이에는 오락, 교양, 보도의 순서로 편성이 되었고, 2003년 봄부터는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교양, 오락, 보도의 편성 패턴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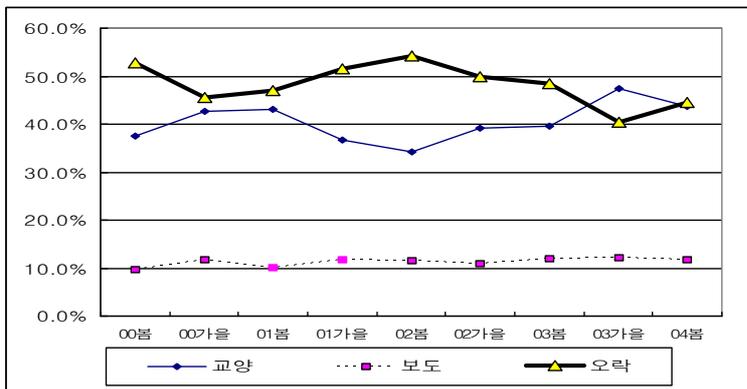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보면, KBS1은 9개 시즌 내내 교양, 보도, 오락 프로그램의 순서로 고정된 편성 패턴을 보였다. MBC는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가장 낮고,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차이가 5% 이내에 머무르면서 편성량의 증감을 보였다. SBS는 2003년을 기점으로 오락, 교양, 보도의 편성 순서에서 교양, 오락, 보도의 순서로 바뀌었다.

## ② 시청시간대별 누적 편성량 및 개편 시즌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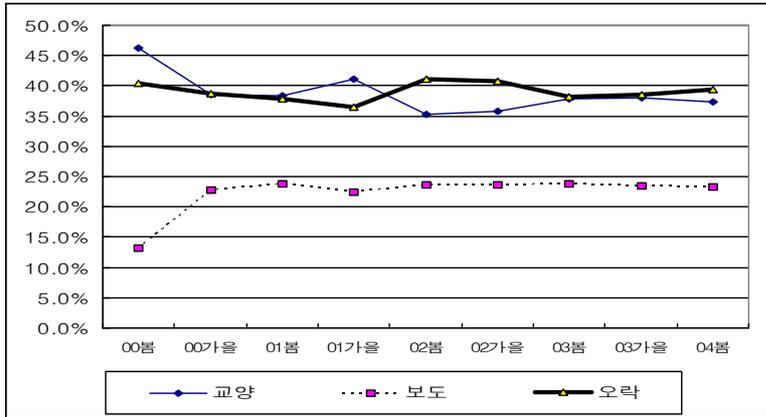
2000~2004년 봄 개편 사이의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누적량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전시간대는 4개 채널 모두 교양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채널의 9차례 개편에 나타난 오전시간대의 교양 프로그램 비중을 보면, 모두 50%에서 70%대까지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오전시간대에 여성과 주부 대상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는 경향이 계속 된 것과 아침 시간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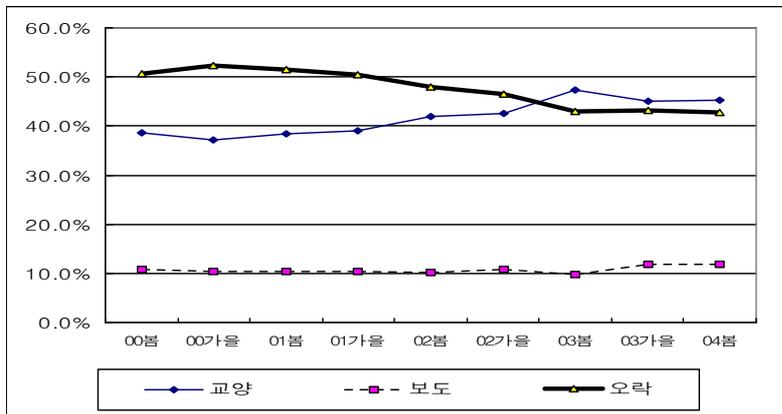
〈그림 III-16〉 2000~2004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KBS1)



〈그림 III-17〉 2000~2004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KBS2)



〈그림 III-18〉 2000~2004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MBC)



〈그림 III-19〉 2000~2004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S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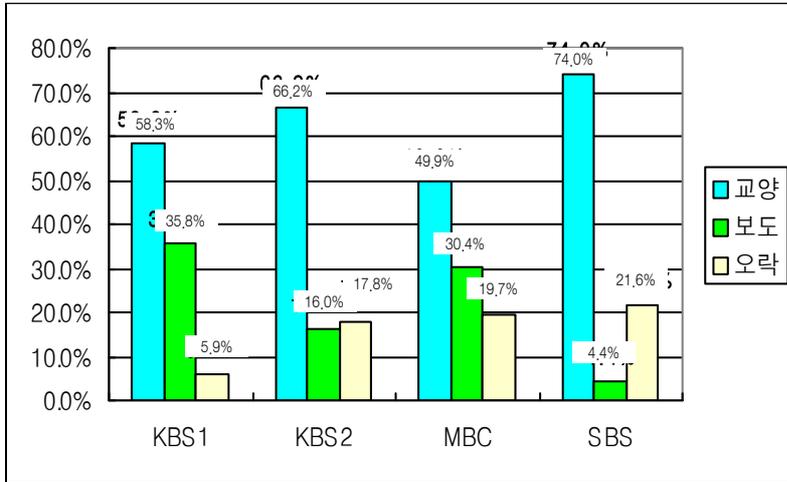
〈표 Ⅲ-3〉 지상파TV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합계(2000~2004 봄)

채널	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교양	49.7%	48.5%	54.5%	56.2%	58.6%	57.4%	57.0%	57.7%	56.6%
	보도	29.8%	31.1%	26.7%	25.5%	24.2%	25.9%	25.2%	24.7%	24.8%
	오락	20.5%	20.3%	18.8%	18.3%	17.2%	16.6%	17.9%	17.6%	18.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교양	37.5%	42.7%	43.0%	36.8%	34.2%	39.2%	39.7%	47.5%	43.7%
	보도	9.6%	11.7%	10.0%	11.7%	11.6%	10.8%	11.9%	12.1%	11.8%
	오락	52.9%	45.6%	47.0%	51.6%	54.2%	50.0%	48.4%	40.4%	44.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교양	46.3%	38.6%	38.4%	41.2%	35.3%	35.7%	37.9%	38.1%	37.4%
	보도	13.3%	22.8%	23.8%	22.4%	23.6%	23.6%	23.9%	23.4%	23.3%
	오락	40.5%	38.7%	37.8%	36.4%	41.1%	40.7%	38.3%	38.5%	39.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교양	38.6%	37.3%	38.3%	39.1%	42.0%	42.6%	47.3%	45.0%	45.2%
	보도	10.8%	10.5%	10.3%	10.4%	10.1%	10.9%	9.8%	11.8%	11.9%
	오락	50.7%	52.3%	51.4%	50.5%	47.9%	46.5%	42.9%	43.2%	42.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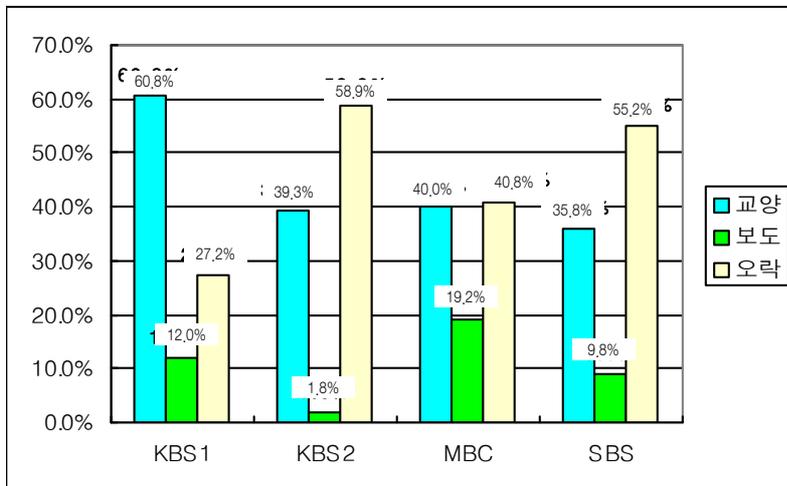
편성된 매거진형 생활종합뉴스 프로그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후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 누적량을 보면, KBS1과 나머지 채널들이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KBS1은 교양, 오락, 보도의 편성 순서를 보였으며, 다른 채널들은 모두 오락, 교양, 보도의 순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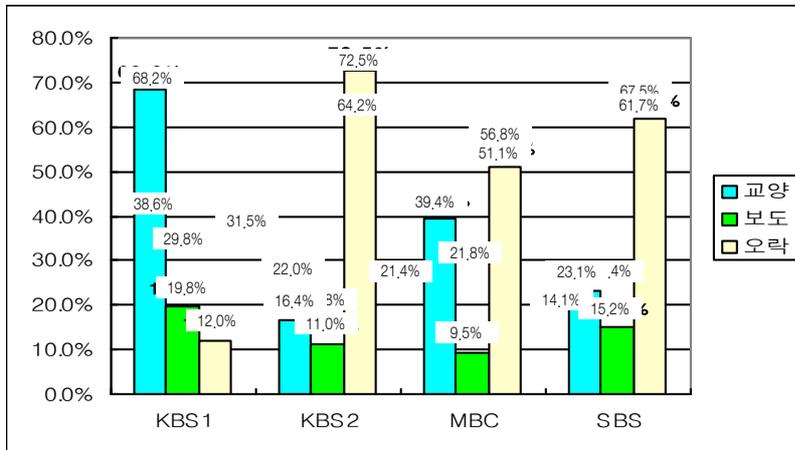
오후시간대는 4시 이후부터 주시청시간대 전까지를 말하는데, 보통 어린이 대상의 애니메이션을 집중 편성하기 때문에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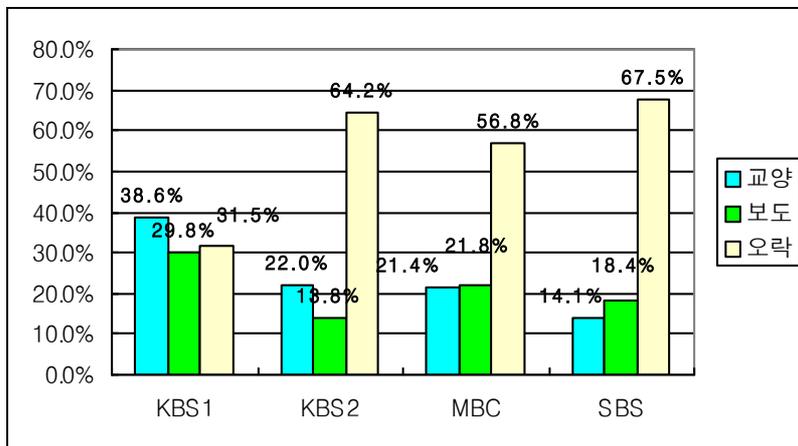
〈그림 Ⅲ-8〉 오전 시간대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 합계(2000 봄~2004 봄)



〈그림 Ⅲ-9〉 오후 시간대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 합계(2000 봄~2004 봄)



〈그림 Ⅲ-59〉 심야 시간대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 합계(2000 봄~2004 봄)



〈그림 Ⅲ-46〉 주시청 시간대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 합계(2000 봄~2004 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의 등의 편성 비중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하루 시청시간대 가운데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 주시청시간대를 본 결과,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KBS1 역시 다른 시간대와 달리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져, KBS1 내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주시청시간대에 가장 높았다. 다른 채널들도 오락 프로그램이 50~60%대의 높은 편성 비중을 보였다.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은 SBS가 가장 높은 67.5%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KBS2 64.2%, MBC 56.8%의 순서였다. 반면, 교양 프로그램은 KBS1 38.6%, KBS2 22.0%, MBC 21.4%, SBS 14.1%의 순서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0~2004년 봄 개편까지의 주시청시간대의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량으로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시즌의 편성 동향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심야시간대의 누적 편성 비중을 보면, KBS1은 교양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았고, 다른 채널들은 모두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야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누적량이 가장 높은 채널은 KBS2로 72.5%였으며, SBS 61.7%, MBC 51.8%의

순서로 나타났다.

KBS1을 제외한 채널들이 모두 심야시간대에 오락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일단 편성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향후 방송시간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성 증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논의에 배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2000~2004년 시기별 개편 동향을 보면, 심야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량은 KBS2, SBS, MBC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표 7 참조) 특히 KBS2는 심야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74.2%에 달했다. 이러한 편성 경향은 오락 프로그램 장르의 내적 다양성을 떠나 이 시간대가 시청자들이 편하고 부담 없는 시청을 원하는 시간대임을 고려해도 지나친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추이를 살펴보면 언급하겠지만, 심야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 집중 편성은 주시청시간대와 마찬가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각 채널별로 개편 시점에 따라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추이를 시간대별로 살펴본 결과, 오전시간대에 KBS1은 교양, 보도, 오락, KBS2는 교양, 오락, 보도의 편성 경향이 유지되었다.(표 4 참조) MBC 역시 교양, 보도, 오락의 편성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SBS는 교양, 오락, 보도의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MBC와 SBS는 모두 아침에 생활종합 정보 중심의 뉴스매거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데, MBC는 보도 프로그램에 가깝고, SBS는 생활정보 교양 프로그램에 가깝기 때문에 교양과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의 차이가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오전시간대에는 MBC의 교양 프로그램이 줄고, 보도 프로그램의 증가가 나타난 현상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오후시간대는 KBS1이 오락 프로그램이 줄고 교양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교양, 오락, 보도 프로그램의 순서로 편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KBS2와 MBC는 오락 프로그램이 줄고 교양 프로그램이 조금씩 늘면서 2003년 가을부터 오락, 교양의 순서에서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순서로 바뀌었다. SBS 역시 오락 프로그램이 줄고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더 높게 유지되었다. 오후시간대를 보면, KBS1을 제외한 3개 채널 모두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4년 사이의 주시청시간대의 편성 동향은 가장 고정적인 패턴을 보였다. KBS1의 경우에는 주시청시간대에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대보다 적은 6~7%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KBS1도 주시청시간대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오락 프로그램에 더 신경을 써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채널들은 모두 주시청시간대의 편성이 오락, 교양, 보도의 순서로 이뤄져 왔다. KBS2는 오락이 소폭 줄고 교양이 소폭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MBC는 교양 20%대, 오락 50%대를 계속 유지했다. SBS 역시 교양 10%대, 오락 60대에서 70% 사이를 유지해왔다. 전반적으로 주시청시간대는 다른 시간대보다 프로그램 편성의 패턴이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심야시간대는 채널들이 각기 다른 패턴을 보였다. KBS1은 압도적으로 교양 중심의 편성이 계속되었으며, 반면 MBC, SBS 등은 오락 중심의 편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교양의 편성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KBS2 역시 교양 중심의 편성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양이 줄고 보도와 오락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오전시간대 교양, 오후시간대 오락과 교양, 주시청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오락 중심으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 ③ 요일별 누적 편성량 및 개편 시즌별 편성 동향

2000~2004년 사이의 개편에 따른 주간 편성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프로그램 부문별 편

성 누적과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일은 4개 채널 모두 교양 프로그램의 비중이 오락 프로그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에는 KBS1을 제외하고는 3개 채널 모두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대폭 줄고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것은 TV 시청량이 많은 주말에 방송사들이 시청률 경쟁을 의식해서 오락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해 온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00년 이후 평일과 주말의 편성 추이를 보면, 평일에는 KBS1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KBS2는 교양이 소폭 늘고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교양의 비중이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MBC는 교양, 오락, 보도의 순서를 유지하는

〈표 III-4〉 지상파TV 오전시간대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채널	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교양	56.2%	54.9%	58.7%	58.9%	58.7%	59.7%	58.9%	58.9%	58.9%
	보도	38.7%	38.7%	35.3%	35.3%	35.3%	34.3%	35.1%	35.1%	35.1%
	오락	5.2%	6.5%	6.0%	5.8%	6.0%	6.0%	6.0%	6.0%	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교양	67.6%	64.9%	76.6%	62.5%	59.9%	69.4%	62.3%	65.1%	67.9%
	보도	12.6%	18.0%	8.7%	14.1%	17.9%	18.3%	19.8%	17.1%	17.1%
	오락	19.8%	17.1%	14.7%	23.4%	22.2%	12.3%	17.9%	17.9%	1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교양	72.0%	50.3%	47.6%	54.0%	43.1%	43.1%	48.8%	46.2%	44.2%
	보도	7.1%	31.5%	33.9%	30.4%	34.7%	34.7%	33.5%	33.9%	33.9%
	오락	20.8%	18.2%	18.5%	15.7%	22.2%	22.2%	17.7%	19.8%	2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교양	71.4%	71.8%	72.2%	71.9%	73.8%	73.4%	78.6%	76.6%	76.2%
	보도	4.0%	4.0%	3.9%	4.0%	4.0%	4.0%	4.0%	6.0%	6.0%
	오락	24.6%	24.2%	23.9%	24.1%	22.2%	22.6%	17.5%	17.5%	17.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I-5〉 지상파TV 오후시간대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채널	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교양	50.4%	56.1%	64.2%	59.6%	63.0%	62.2%	62.5%	66.7%	59.6%
	보도	10.5%	10.6%	8.6%	13.3%	11.7%	14.2%	12.7%	12.7%	12.7%
	오락	39.1%	33.3%	27.2%	27.2%	25.3%	23.6%	24.8%	20.6%	27.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교양	23.1%	29.3%	31.2%	37.7%	41.9%	42.0%	37.2%	55.3%	50.7%
	보도	2.3%	4.9%	4.6%	4.0%	0.3%	0.5%	0.0%	0.0%	0.0%
	오락	74.6%	65.7%	64.2%	58.3%	57.8%	57.5%	62.8%	44.7%	49.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교양	35.6%	34.2%	37.3%	47.2%	41.4%	39.5%	39.8%	43.1%	42.5%
	보도	17.8%	19.3%	19.4%	19.4%	16.4%	20.1%	20.1%	20.1%	20.1%
	오락	46.6%	46.6%	43.2%	33.3%	42.3%	40.4%	40.1%	36.9%	3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교양	25.5%	27.4%	29.6%	29.6%	42.6%	34.1%	49.6%	42.1%	40.7%
	보도	8.6%	8.3%	10.2%	10.2%	10.0%	9.5%	3.7%	9.5%	10.9%
	오락	66.0%	64.3%	60.2%	60.2%	47.4%	56.4%	46.7%	48.4%	48.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I-8〉 지상파TV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누적 동향(2000~2004 봄, 요일별)

채널	평일			합계	주말			합계
	교양	보도	오락		교양	보도	오락	
KBS1	56.4%	33.0%	10.6%	100.0%	53.2%	13.4%	33.3%	100.0%
KBS2	46.1%	15.3%	38.6%	100.0%	29.6%	3.3%	67.2%	100.0%
MBC	44.1%	27.3%	28.6%	100.0%	28.0%	12.1%	59.8%	100.0%
SBS	46.4%	13.0%	40.6%	100.0%	32.6%	6.2%	61.2%	100.0%

〈표 III-6〉 지상파TV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채널	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교양	36.1%	30.0%	33.9%	45.8%	46.1%	37.8%	39.4%	39.2%	39.2%
	보도	34.2%	36.9%	32.5%	22.8%	22.8%	31.1%	29.4%	29.4%	29.4%
	오락	29.7%	33.1%	33.6%	31.4%	31.1%	31.1%	31.1%	31.4%	31.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교양	13.3%	30.0%	20.8%	15.8%	10.6%	16.7%	29.4%	36.1%	25.6%
	보도	16.4%	16.4%	16.4%	12.5%	12.5%	11.1%	11.1%	13.9%	13.9%
	오락	70.3%	53.6%	62.8%	71.7%	76.9%	72.2%	59.4%	50.0%	6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교양	25.8%	24.7%	25.8%	18.3%	18.9%	18.9%	18.3%	21.7%	20.3%
	보도	20.3%	20.3%	22.2%	22.2%	22.2%	22.2%	22.2%	22.2%	22.2%
	오락	53.9%	55.0%	51.9%	59.4%	58.9%	58.9%	59.4%	56.1%	5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교양	13.6%	10.3%	11.9%	11.9%	12.8%	17.2%	18.3%	15.0%	15.8%
	보도	18.1%	18.1%	18.1%	18.1%	17.5%	18.9%	18.9%	18.9%	18.9%
	오락	68.3%	71.7%	70.0%	70.0%	69.7%	63.9%	62.8%	66.1%	65.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I-7〉 지상파TV 심야시간대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채널	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교양	60.1%	58.4%	65.8%	63.6%	71.7%	74.4%	70.6%	69.4%	72.6%
	보도	26.2%	30.3%	23.7%	25.6%	19.6%	17.7%	15.9%	13.6%	13.9%
	오락	13.7%	11.2%	10.5%	10.8%	8.7%	7.9%	13.5%	17.1%	13.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교양	33.0%	37.8%	20.4%	9.5%	6.9%	8.0%	12.9%	17.1%	11.3%
	보도	0.0%	0.0%	10.6%	16.2%	13.1%	10.6%	13.7%	16.3%	14.5%
	오락	67.0%	62.2%	69.0%	74.3%	80.0%	81.4%	73.4%	66.7%	74.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교양	37.6%	40.7%	39.2%	40.3%	35.5%	40.2%	41.3%	38.5%	41.4%
	보도	8.6%	12.6%	9.1%	9.0%	11.4%	7.4%	11.6%	8.2%	7.4%
	오락	53.8%	46.8%	51.7%	50.7%	53.1%	52.5%	47.1%	53.3%	5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교양	19.9%	14.5%	17.7%	22.9%	17.8%	29.0%	22.6%	28.2%	31.6%
	보도	19.3%	17.1%	12.3%	13.0%	11.9%	15.3%	16.9%	16.9%	15.2%
	오락	60.8%	68.4%	70.0%	64.1%	70.3%	55.6%	60.5%	54.8%	53.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운데, 교양이 줄고 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SBS는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늘고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주말의 경우에는 4개 채널 모두 부문별 증감폭이 적고, KBS1 교양, 오락, 보도의 순서, 다른 채널들은 오락, 교양, 보도의 편성 순서를 유지했다. 이것은 시간대별로 살펴보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청량이 높은 편성 위치, 즉 주시청시간대와 주말 등에는 오락 중심의 고정화, 정형화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2000~2004년 지상파TV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 동향

#### ① 누적 편성량 및 개편 시즌별 편성 동향

지상파TV 4개 채널의 2000~2004년 내 9개 개편 시즌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 누적량을 보면, 4개 채널 모두 생활교양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생활교양 프로그램은 생활경제, 레

〈표 III-9〉 지상파TV 평일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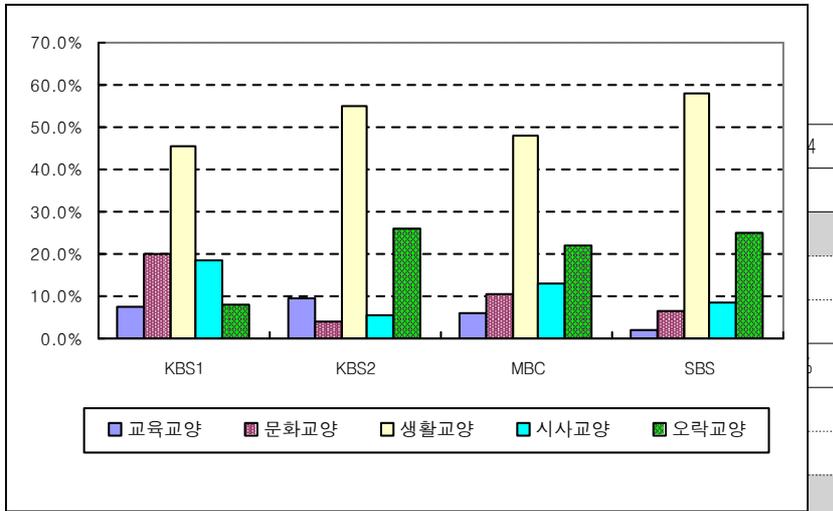
58.0%

채널	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교양	50.6%	47.6%	56.2%	57.9%	62.0%	52.0%	57.7%	57.1%	58.1%
	보도	38.8%	41.2%	33.7%	31.7%	28.9%	13.2%	31.4%	30.9%	30.9%
	오락	10.6%	11.2%	10.2%	10.4%	9.7%	9.6%	10.8%	12.0%	1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교양	43.3%	48.5%	46.5%	45.1%	37.8%	44.2%	46.2%	51.9%	50.8%
	보도	13.3%	15.9%	13.7%	15.6%	15.2%	14.7%	16.2%	16.8%	16.3%
	오락	43.4%	35.6%	39.8%	39.3%	46.9%	41.0%	37.6%	31.3%	32.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교양	53.7%	45.9%	46.3%	44.6%	40.4%	40.8%	42.3%	41.7%	41.7%
	보도	16.1%	28.2%	28.8%	27.4%	29.0%	28.7%	29.8%	29.0%	28.7%
	오락	30.2%	25.9%	24.9%	28.0%	30.7%	30.4%	27.9%	29.4%	29.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교양	42.1%	39.9%	43.6%	43.9%	45.5%	48.8%	52.3%	50.1%	50.6%
	보도	12.8%	12.5%	12.2%	12.4%	12.2%	13.4%	11.7%	14.8%	14.9%
	오락	45.1%	47.5%	44.2%	43.7%	42.3%	37.8%	36.0%	35.2%	34.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저, 건강정보 등 생활 정보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가족 중심 다큐멘터리 등이 포함된다. 생활경제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부담 없이 즐기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

반면, 에듀테인먼트나 인포테인먼트형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공익성 오락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오락교양 프로그램 역시 적지 않았다. KBS1을 제외하고 모두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교양, 문화교양, 시사교양, 생활교양, 오락교양 등 5개 유형의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익성 오락 프로그램은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익성 오락 프로그램은 포맷과 소재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오락교양 프로그램들이 시즌 초반에는 신선한 포맷으로 인해 주목 받지만, 결국 시청률 경쟁 때문에 무리한 포맷으로 선정성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는 경우가 잦다. 더군다나 오락교양 프로그램은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를 지키면서 시청률 경쟁을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순수 문화예술을 주로 다루는 문화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비중이 매우 적은 가운데 오락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과다 편성 비중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봄 개편 이후 매 시즌별로 교양 프로그램의 유형별 편성 추이를 보면, KBS1은 문화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고, KBS2는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오락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소폭 줄어들고, 문화교양이 소폭 늘어나



(그림 72) 지상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채널	교양	보도	오락	합계
MBC	31.5%	7.7%	60.8%	100.0%
SBS	31.8%	6.9%	61.4%	100.0%

는 경향을 보였다. MBC는 생활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크게 줄고 대신 오락표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크게 늘었다. SBS는 시사교양은 늘고 오락교양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동향 가운데 주목할 것은 오락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전체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평균 20%대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다. KBS2는 2000년보다 소폭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2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MBC는 생활교양이 줄고 오히려 오락교양이 늘었다. SBS는 문화교양이 소폭 늘고 오락교양이 줄기는 했지만 19.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시청시간대별 누적 편성량 및 개편 시즌별 편성 동향

교양 프로그램의 오전시간대 편성 누적 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9개 시즌 동안 생활교양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전시간대의 경우 아침 일찍 방송되는 뉴스매거진형생활교양 프로그램들과 여성/가정주부 대상의 생활정보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오전시간대에 여성과 가정주부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1을 제외하고는 모두 5%에도 못 미치는 비중을 보였다. 반면 오락교양에 해당하는 토크쇼 중심의 교양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옴으로써 오락교양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오후시간대에 편성되는 교양 프로그램 역시 생활교양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시간대에 비해 오후시간대는 유아/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편성이 많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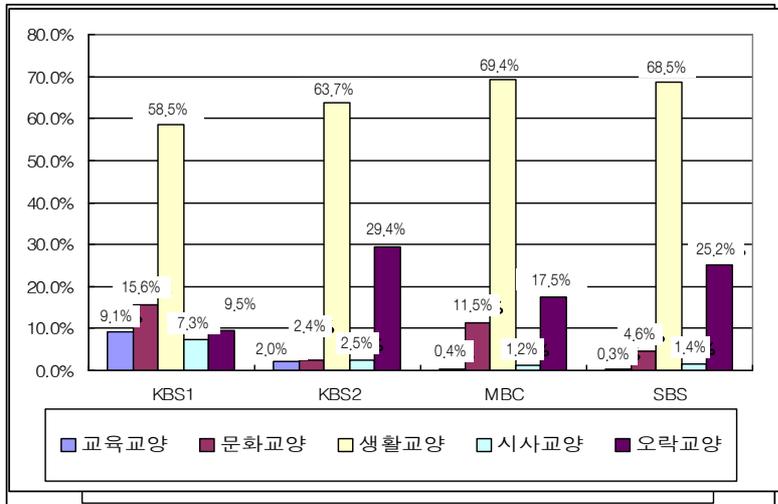
때문에 교육교양 프로그램이 다른 시간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2의 경우 교육교양과 생활교양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로 교육교양의 편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11〉 지상파TV 교양 프로그램의 전체 편성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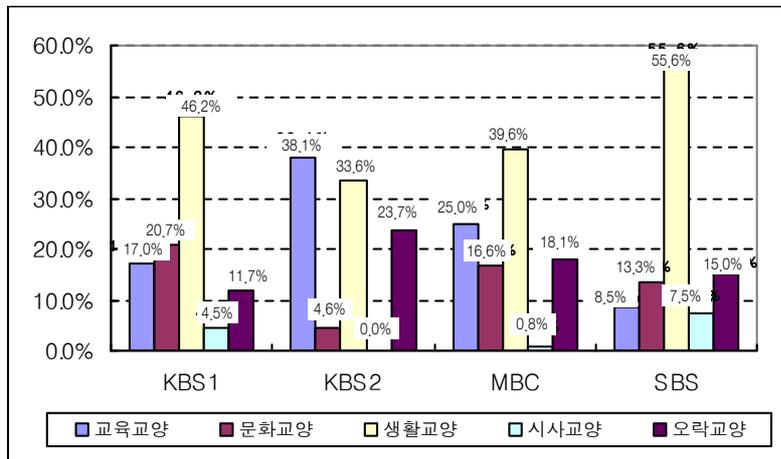
채널	세부장르	2000		2001		2002		2003		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KBS1	교육교양	9.4%	9.6%	7.9%	7.7%	7.0%	7.0%	7.1%	8.4%	6.0%
	문화교양	16.2%	20.0%	21.4%	17.1%	12.7%	20.0%	19.3%	22.4%	31.6%
	생활교양	45.6%	44.1%	49.5%	51.2%	59.5%	49.1%	37.6%	37.7%	37.3%
	시사교양	21.8%	21.0%	15.3%	15.6%	13.1%	15.1%	28.0%	19.7%	15.9%
	오락교양	7.0%	5.2%	19.3%	19.3%	20.0%	8.8%	23.4%	7%	9.2%
합계	12.8%	100.0%	100.0%	16.2%	100.0%	19.3%	100.0%	100.0%	100.0%	100.0%
KBS2	교육교양	11.5%	10.7%	17.0%	17.0%	6.8%	7.1%	7.7%	7.7%	7.7%
	문화교양	2.1%	2.3%	2.4%	2.9%	0.0%	0.0%	8.7%	9.4%	9.4%
	생활교양	51.6%	52.0%	57.7%	43.9%	51.8%	65.8%	61.0%	54.8%	54.8%
	시사교양	5.1%	4.9%	2.0%	2.4%	8.7%	13.4%	6.6%	4.7%	4.7%
	오락교양	29.7%	26.9%	24.3%	34.0%	36.7%	18.6%	21.0%	22.8%	23.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교육교양	4.5%	6.6%	9.1%	6.9%	6.2%	6.0%	5.8%	5.6%	5.7%
	문화교양	13.6%	15.7%	8.6%	10.0%	8.8%	11.6%	9.1%	6.9%	11.1%
	생활교양	60.0%	54.2%	55.0%	51.6%	45.2%	38.1%	40.5%	43.2%	39.4%
	시사교양	10.4%	11.3%	12.7%	10.4%	11.8%	15.3%	14.9%	15.2%	17.2%
	오락교양	11.5%	12.2%	14.6%	21.1%	28.0%	29.0%	29.7%	29.0%	26.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교육교양	4.6%	0.0%	0.0%	0.0%	3.5%	3.2%	2.3%	1.5%	1.5%
	문화교양	4.7%	5.0%	6.2%	6.1%	5.9%	5.5%	6.9%	5.2%	11.5%
	생활교양	53.5%	61.8%	61.5%	59.6%	57.6%	61.0%	60.3%	56.2%	51.4%
	시사교양	6.8%	5.8%	6.2%	6.1%	5.6%	5.1%	6.7%	15.7%	16.2%
	오락교양	30.4%	27.4%	26.1%	28.2%	27.4%	25.2%	23.7%	21.5%	19.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주시청시간대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KBS1을 제외하고는 2000년 봄 이후 9개 시즌 동안 문화교양 프로그램의 편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네 채널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KBS1과 KBS2는 생활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MBC와 SBS는 문화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오락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것은 주시청시간대에 MBC와 SBS가 시청률 경쟁을 의식한 오락 포맷의 교양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편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KBS1과 KBS2의 경우에는 주시청시간대에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려는 의지가 약했던 점과 MBC와 SBS는 오락교양 프로그램 중심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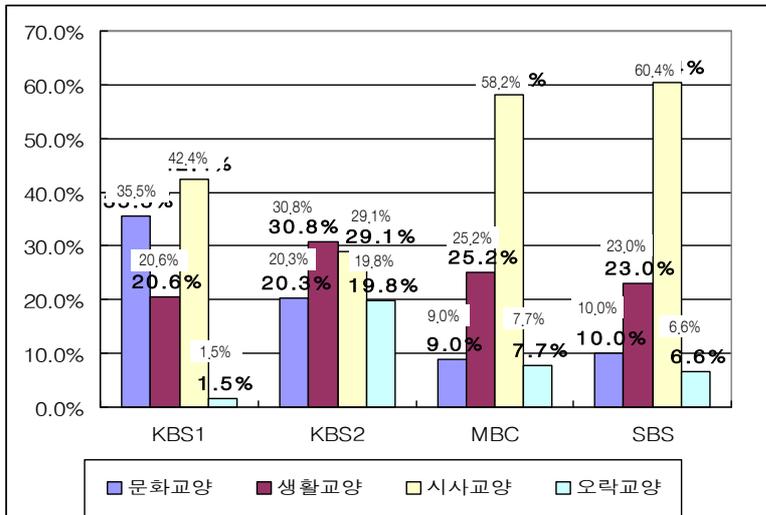
9개 시즌 동안 심야시간대의 교양 프로그램을 종합한 결과, 다른 시간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활교양 프로그램의 비중이 대폭 줄고 대신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크게



〈그림 III-110〉 오전 시간대 교양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합계(2000~2004 봄)  
 〈그림 III-93〉 주시청 시간대 교양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합계(2000~2004 봄)



〈그림 III-131〉 오후 시간대 교양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합계(2000~2004 봄)



〈그림 III-152〉 심야시간대 교양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합계(2000-2004 봄)

높아진 점이다. 이것은 심야시간대의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전략이 시사교양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뤄져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각 시간대별 교양 프로그램 편성의 특징을 보면, 오전시간대는 생활교양, 오후 시간대는 생활교양과 교육교양, 주시청시간대에는 오락교양, 심야시간대에는 시사교양 등의 차별화 전략이 정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KBS1과 KBS2는 심야시간대에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을 신중히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좀 더 적극적인 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III-12〉 지상파TV 교양 프로그램의 오전시간대 편성 동향

채널	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교육교양	9.2%	9.4%	8.1%	8.1%	7.8%	8.0%	8.1%	15.5%	8.1%
	문화교양	10.0%	10.2%	16.2%	16.2%	7.8%	18.3%	22.6%	15.2%	22.6%
	생활교양	64.2%	63.4%	56.8%	56.9%	69.3%	55.1%	53.9%	53.9%	53.9%
	시사교양	11.9%	12.2%	10.8%	7.4%	7.2%	7.3%	3.4%	3.4%	3.4%
	오락교양	4.6%	4.7%	8.1%	11.4%	7.8%	11.3%	12.1%	12.1%	1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교육교양	3.0%	3.1%	2.6%	9.8%	0.0%	0.0%	0.0%	0.0%	0.0%
	문화교양	0.0%	0.0%	0.0%	0.0%	0.0%	0.0%	0.0%	10.7%	10.2%
	생활교양	65.0%	59.4%	72.0%	58.3%	67.5%	68.4%	62.7%	60.1%	57.6%
	시사교양	0.0%	0.0%	0.0%	0.0%	0.0%	5.4%	6.5%	5.5%	5.3%
	오락교양	32.0%	37.5%	25.4%	31.9%	32.5%	26.3%	30.8%	23.8%	26.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교육교양	2.8%	0.0%	0.0%	0.0%	0.0%	0.0%	0.0%	0.0%	0.0%
	문화교양	12.1%	22.6%	15.8%	7.4%	10.1%	10.1%	9.4%	4.7%	9.9%
	생활교양	85.1%	77.4%	84.2%	75.2%	59.9%	59.9%	54.5%	58.8%	56.5%
	시사교양	0.0%	0.0%	0.0%	0.0%	0.0%	0.0%	3.4%	4.3%	4.5%
	오락교양	0.0%	0.0%	0.0%	17.4%	30.0%	30.0%	32.8%	32.2%	29.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교육교양	0.0%	0.0%	0.0%	0.0%	0.0%	0.0%	0.0%	1.3%	1.3%
	문화교양	3.1%	3.3%	6.0%	6.0%	5.9%	3.2%	3.5%	1.3%	9.1%
	생활교양	66.4%	66.3%	66.9%	66.5%	64.0%	69.7%	73.2%	73.6%	69.3%
	시사교양	2.8%	2.8%	0.0%	0.0%	0.0%	0.0%	2.5%	2.6%	2.1%
	오락교양	27.8%	27.6%	27.1%	27.5%	30.1%	27.0%	20.7%	21.2%	18.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I-14〉 지상파TV의 교양 프로그램 주시청시간대 편성 동향

채널	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문화교양	9.2%	22.2%	27.9%	13.3%	7.2%	16.2%	7.0%	8.5%	8.5%
	생활교양	40.0%	37.0%	45.9%	56.4%	60.8%	41.2%	42.3%	39.0%	39.0%
	시사교양	33.8%	40.7%	26.2%	24.2%	19.3%	35.3%	43.7%	45.4%	45.4%
	오락교양	16.9%	0.0%	0.0%	6.1%	12.7%	7.4%	7.0%	7.1%	7.1%
KBS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생활교양	25.0%	59.3%	70.7%	61.4%	36.8%	80.0%	67.9%	72.3%	73.9%
	시사교양	50.0%	18.5%	21.3%	17.5%	31.6%	20.0%	20.8%	0.0%	0.0%
	오락교양	25.0%	22.2%	8.0%	21.1%	31.6%	0.0%	11.3%	27.7%	26.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생활교양	12.9%	25.8%	17.2%	16.7%	17.6%	17.6%	18.2%	30.8%	16.4%
	시사교양	29.0%	22.5%	33.3%	16.7%	14.7%	14.7%	15.2%	12.8%	13.7%
	오락교양	58.1%	51.7%	49.5%	66.7%	67.6%	67.6%	66.7%	56.4%	69.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생활교양	0.0%	24.3%	46.5%	46.5%	47.8%	53.2%	0.0%	0.0%	5.3%
	시사교양	6.1%	10.8%	7.0%	7.0%	4.3%	3.2%	6.1%	13.0%	12.3%
	오락교양	93.9%	64.9%	46.5%	46.5%	47.8%	43.5%	93.9%	87.0%	82.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요일별 누적 편성량 및 개편 시즌별 편성 동향

한편, 2000년 이후 9개 시즌 동안의 교양 프로그램 편성 비중을 주말과 평일로 나누어 보면, 평일과 주말의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누적 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4개 채널 모두 생활교양 프로그램이 50~6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주말에는 SBS를 제외하고는 KBS1 23.7%, KBS2 44.7%, MBC 33.7%로 낮아지고 시사교양과 오락교양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에 유아/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교육교양과 가족대상의 문화교양 프로그램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6〉 요일별 교양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합계

〈표 III-17〉		채널	평일	주말	합계	시사교양	오락교양	총합계	
KBS1	교육교양	11.1%	11.8%	8.8%	8.6%	8.0%	8.0%	12.1%	8.0%
	문화교양	12.6%	16.5%	22.0%	15.5%	18.7%	18.8%	22.9%	36.3%
SBS	생활교양	59.4%	58.0%	59.3%	63.5%	62.5%	26.4%	45.5%	45.1%
	시사교양	4.4%	4.9%	10.6%	10.6%	9.6%	9.6%	13.2%	9.6%
KBS1	오락교양	2.5%	4.6%	2.0%	1.5%	29.3%	21.0%	0.0%	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교육교양	13.2%	17.0%	12.6%	22.6%	9.4%	35.9%	6.0%	9.8%
	문화교양	2.9%	2.4%	0.0%	0.6%	0.0%	0.0%	8.0%	12.0%
SBS	생활교양	56.3%	55.3%	55.5%	43.5%	54.5%	14.1%	72.4%	21.9%
	시사교양	0.0%	0.0%	3.2%	0.0%	0.0%	0.0%	6.1%	2.4%
KBS1	오락교양	27.6%	25.2%	18.7%	33.5%	36.3%	18.2%	20.7%	21.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교육교양	3.9%	8.3%	11.5%	9.4%	8.2%	7.8%	7.7%	7.7%
	문화교양	14.5%	13.5%	6.6%	10.9%	8.5%	12.2%	9.3%	6.5%
	생활교양	64.6%	57.7%	59.3%	56.8%	49.7%	40.3%	45.6%	50.6%
	시사교양	8.4%	10.6%	12.2%	9.2%	10.1%	14.7%	12.8%	13.2%
	오락교양	8.6%	9.9%	10.4%	13.8%	23.5%	25.1%	24.4%	2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교육교양	6.3%	0.0%	0.0%	0.0%	4.6%	4.2%	3.1%	2.0%
	문화교양	3.4%	3.9%	5.3%	5.4%	5.1%	4.6%	7.0%	2.0%
	생활교양	50.7%	63.6%	60.5%	60.0%	57.4%	61.8%	66.5%	60.5%
	시사교양	3.7%	0.0%	5.3%	5.4%	4.6%	4.2%	2.7%	14.5%
	오락교양	35.9%	32.5%	28.9%	29.3%	28.2%	25.3%	20.7%	2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I-19〉 지상파 TV 오락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합계

채널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애니메이션	영화	오락정보	음악쇼	코미디쇼	퀴즈/게임쇼	토크쇼	기타	합계
KBS 1	39.5%	5.4%	1.5%	3.0%	9.8%	0.0%	13.8%	0.0%	4.2%	0.0%	22.9%	100.0%
KBS 2	39.8%	17.8%	1.6%	7.6%	6.4%	0.6%	7.7%	3.5%	1.1%	1.1%	13.0%	100.0%
MBC	42.6%	16.6%	4.7%	5.4%	9.7%	1.2%	6.0%	2.5%	0.6%	0.4%	10.4%	100.0%
SBS	40.8%	23.9%	5.5%	10.0%	5.5%	1.3%	2.6%	1.0%	0.0%	2.0%	7.4%	100.0%

※2000~2004 봄

#### 4) 2000~2004년 지상파TV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동향

##### ① 누적 편성량 및 개편 시즌별 편성 동향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말할 때, 장르 간 다양성과 장르 내 다양성으로 나누는 것은 보도, 교양, 오락 간의 균형이 이뤄진 편성을 하더라도 각 장르 내에서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에 편성이 집중되는 것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2000년 봄 이후 9개 시즌 동안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을 살펴보았다. 각 시즌에 포함된 오락 프로그램을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애니메이션, 영화, 오락정보, 음악쇼, 코미디쇼, 퀴즈/게임쇼, 토크쇼, 오락정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타로 분류된 장르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오후에 편성되는 재방송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이 오락에 해당하는 드라마 재방송 또는 스포츠 중계이며, 구체적인 장르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하였다.

2000~2004년 사이의 누적 편성량을 보면, 특정 장르에 편성된 편성을 한다는 기존의 지적이 그대로 드러났다. 4개 채널 모두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드라마를 집중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의 드라마 편성 비중을 보였으며, 기타로 분류된 주말 오후의 드라마 재방송 편성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더 높아질 수 있다. KBS1을 제외한 KBS2, MBC, SBS는 버라이어티쇼 편성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오락 장르가 10%대 미만의 낮은 편성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2000~2004년 사이의 편성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KBS1의 경우 드라마와 음악쇼를 중심으로 부문별 편성 비중이 큰 폭의 증감 없이 유지되어 왔다. KBS2는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이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MBC 역시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 중심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이 유지되어 왔으며, 드라마의 경우 평균 40%대의 높은 편성 비중을 보였다. SBS 역시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 중심의 편성 경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봄 이후 9개 개편 시즌 동안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동향을 종합해 보면,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 패턴이 굳어져왔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국내 방송사가 드라마 왕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도, 교양, 오락이라는 장르 간 균형이 적절히 이뤄진다고 해도, 각 장르 내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에 편성이 집중된다면, 이는 다양성이 제대로 이뤄진 편성이라고 할 수 없다.

방송의 다양성은 시청자의 문화적 취향을 다양하게 보장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시청시간대별 누적 편성량 및 개편 시즌별 편성 동향

오전시간대의 경우에는 9개 시즌 동안 드라마의 편성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전시간대의 경우에는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높고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은 낮았다. 따라서

〈표 III-20〉 지상파 TV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동향

채널	세부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드라마	38.4%	40.9%	40.5%	38.2%	39.3%	39.7%	36.9%	46.7%	35.4%
	버라이어티쇼	3.9%	3.9%	3.9%	4.4%	5.7%	5.4%	5.4%	8.2%	7.7%
	스포츠	0.0%	0.0%	0.0%	0.0%	0.0%	0.0%	0.0%	13.2%	0.0%
	애니메이션	7.8%	6.2%	6.2%	4.0%	0.0%	2.5%	0.0%	0.0%	0.0%
	영화	8.9%	7.8%	7.7%	7.6%	8.2%	8.3%	13.1%	13.2%	12.5%
	음악쇼	13.2%	13.2%	13.9%	14.5%	14.3%	14.5%	13.5%	14.0%	13.3%
	퀴즈/게임쇼	0.0%	4.7%	4.6%	4.8%	4.9%	5.0%	4.6%	4.7%	4.4%
	기타	27.9%	23.3%	23.2%	26.5%	27.5%	24.8%	26.5%	0.0%	26.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드라마	34.8%	35.3%	37.3%	40.3%	40.0%	35.1%	43.8%	56.6%	36.4%
	버라이어티쇼	20.8%	20.9%	15.2%	15.5%	16.6%	18.1%	20.2%	15.6%	17.0%
	스포츠	0.0%	0.0%	0.0%	0.0%	1.7%	3.2%	2.1%	2.7%	3.9%
	애니메이션	9.8%	8.6%	14.3%	5.5%	5.0%	6.7%	7.9%	6.1%	5.5%
	영화	4.2%	6.6%	6.3%	7.1%	6.4%	4.2%	4.2%	5.4%	13.9%
	오락정보	0.0%	0.0%	0.0%	0.0%	0.0%	0.0%	1.6%	2.0%	1.8%
	음악쇼	9.9%	9.3%	8.4%	8.0%	7.2%	7.2%	6.0%	7.1%	6.4%
	코미디쇼	3.9%	4.3%	3.6%	3.3%	1.7%	3.2%	3.4%	4.4%	4.2%
	퀴즈/게임쇼	1.8%	0.0%	1.8%	0.0%	1.5%	4.5%	0.0%	0.0%	0.0%
	토크쇼	2.1%	2.3%	2.1%	1.6%	1.7%	0.0%	0.0%	0.0%	0.0%
기타	12.7%	12.7%	10.8%	18.7%	18.2%	17.8%	10.9%	0.0%	1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드라마	40.2%	38.3%	36.4%	46.1%	44.7%	42.1%	41.4%	51.5%	43.1%
	버라이어티쇼	12.2%	16.9%	16.9%	14.1%	17.7%	19.7%	18.5%	16.7%	16.3%
	스포츠	5.5%	3.9%	6.4%	4.6%	5.2%	3.9%	4.1%	4.3%	4.4%
	애니메이션	10.3%	5.3%	6.8%	5.0%	4.1%	4.1%	4.2%	4.3%	4.2%
	영화	9.0%	9.3%	8.0%	9.9%	9.1%	10.5%	10.8%	9.2%	11.1%
	오락정보	0.0%	0.0%	0.0%	0.0%	1.2%	1.9%	1.9%	3.8%	1.9%
	음악쇼	5.2%	5.7%	6.1%	6.5%	5.7%	5.8%	6.0%	6.5%	6.3%
	코미디쇼	3.6%	3.9%	1.9%	2.3%	2.1%	1.9%	2.5%	2.0%	1.9%
	퀴즈/게임쇼	1.6%	2.0%	2.1%	0.0%	0.0%	0.0%	0.0%	0.0%	0.0%
	토크쇼	0.0%	1.8%	0.0%	0.0%	0.0%	0.0%	0.0%	0.0%	1.9%
기타	12.4%	12.8%	15.5%	11.5%	10.3%	10.2%	10.6%	1.8%	8.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I-20〉 지상파TV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동향(계속)

채널	세부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SBS	드라마	39.7%	37.1%	38.2%	39.3%	44.3%	42.0%	37.2%	47.4%	42.9%
	버라이어티쇼	18.4%	26.8%	23.5%	22.9%	24.7%	27.5%	23.4%	25.2%	22.6%
	스포츠	2.5%	2.3%	8.1%	7.0%	7.1%	4.4%	6.7%	4.6%	6.7%
	애니메이션	13.7%	13.0%	10.1%	10.5%	7.8%	7.4%	8.0%	8.9%	10.4%
	영화	5.8%	4.1%	6.5%	6.4%	4.9%	5.2%	5.6%	5.5%	5.4%
	오락정보	0.0%	0.0%	1.6%	1.7%	1.7%	1.8%	1.9%	1.7%	1.8%
	음악쇼	1.4%	3.2%	1.6%	1.7%	1.7%	1.8%	3.8%	4.8%	3.8%
	코미디쇼	0.0%	0.0%	0.0%	1.4%	0.0%	1.8%	2.2%	1.9%	1.9%
	토크쇼	6.1%	3.8%	1.4%	0.0%	0.0%	0.0%	2.2%	0.0%	4.5%
	기타	12.4%	9.6%	8.9%	9.2%	7.9%	8.2%	8.9%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I-21〉 오전 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 합계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쇼	코미디쇼	퀴즈/게임쇼	기타	합계
KBS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KBS2	63.4%	4.5%	0.0%	5.9%	0.5%	14.5%	0.0%	0.0%	11.3%	100.0%
MBC	65.9%	20.1%	0.0%	0.0%	0.0%	10.5%	0.0%	3.4%	0.0%	100.0%
SBS	49.2%	43.2%	2.0%	0.5%	0.0%	3.7%	1.4%	0.0%	0.0%	100.0%

〈표 III-22〉 주일 오후 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 합계

채널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영화	음악쇼	코미디쇼	퀴즈/게임쇼	토크쇼	합계
KBS1	60.8%	9.4%	0.0%	0.0%	20.5%	0.0%	9.4%	0.0%	100.0%
KBS2	54.5%	28.7%	1.0%	1.2%	5.1%	6.2%	3.2%	0.1%	100.0%
MBC	70.1%	26.8%	0.0%	0.0%	0.2%	2.7%	0.0%	0.3%	100.0%
SBS	70.9%	27.2%	0.0%	0.3%	0.4%	0.5%	0.0%	0.7%	100.0%

※2000~2004 봄

오락 장르 가운데 아침 드라마 형태의 드라마가 집중 편성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유아/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집중 편성되는 오후시간대에는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애니메이션 등에 분산되어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시간대에 포함된 기타 장르는 주말 오후의 재방송 프로그램과 스포츠 중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을 감안한다면 오후시간대의 드라마 편성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KBS2는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애니메이션에 집중되어 있으며, MBC는 드라마와 애니메

〈표 III-24〉 심야 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 합계

채널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영화	오락 프로그램	음악쇼	코미디	토크쇼	합계
KBS	95.7%	0.0%	0.0%	0.0%	0.0%	0.0%	0.0%	0.0%	100.0%
KBS2	33.1%	14.9%	5.1%	21.6%	2.4%	13.2%	5.4%	4.3%	100.0%
MBC	11.3%	10.9%	20.9%	39.1%	0.6%	13.9%	0.0%	0.0%	100.0%
SBS	10.8%	23.8%	24.8%	25.9%	2.5%	2.9%	0.4%	0.3%	100.0%
※2000~2004 봄									
MBC	12.1%	3.9%	1.1%	21.9%	5.6%	8.2%	5.0%	0.0%	42.3%
SBS	19.8%	8.6%	0.0%	36.0%	0.0%	6.7%	2.1%	0.0%	26.8%

※2000~2004 봄

이전 편성 비중이 높았다. SBS 역시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애니메이션의 편성 비중이 높았다.

한편, 방송시간 시청률 경쟁이 가장 치열한 주시청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 동향을 보면, 오전시간대와 마찬가지로 드라마에 60~70%대의 높은 편성 비중이 두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이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으로 KBS1을 제외하고는 각각 20%대 후반의 편성 비중을 보였다. 결국 방송사가 편성의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시청시간대 장르 내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야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동향을 보면, 방송사들은 심야시간대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KBS1은 영화가 95.7%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KBS2는 드라마 33.1%, 영화 21.6%, 음악쇼 11.9%, 버라이어티쇼 14.9 등으로 나타났다. MBC 역시 드라마 11.3%, 버라이어티쇼 10.9%, 스포츠 20.9%, 영화 39.1% 등과 같이 비교적 고른 편성 분포를 보였다. SBS는 드라마 10.8%, 버라이어티쇼 23.8%, 스포츠 24.8%, 영화 25.9% 등으로 역시 다양한 유형의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9개 시즌 동안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동향을 정리해 보면, 전체적으로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왔다는 볼 수 없다.

한편, 시간대별로 편성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전시간대에는 여성/주부 대상의 드라마 중심 편성, 오후시간대에는 애니메이션 과 드라마 중심 편성이 이뤄져왔다. 특히 평일 오후 시간대에는 유아와 어린이 대상의 애니메이션 편성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시청시간대에는 일반 대상의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 심야시간대에는 다른 시간대와 달리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가운데 영화와 스포츠, 드라마 장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패턴 역시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고정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지상파TV의 오락 프로그램 오후시간대 편성 동향

채널	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드라마	0.0%	0.0%	0.0%	0.0%	0.0%	0.0%	0.0%	34.3%	0.0%
	버라이어티쇼	0.0%	0.0%	0.0%	0.0%	3.7%	2.5%	3.6%	14.3%	10.6%
	스포츠	0.0%	0.0%	0.0%	0.0%	0.0%	0.0%	0.0%	34.3%	0.0%
	애니메이션	19.2%	18.2%	18.2%	11.4%	0.0%	7.5%	0.0%	0.0%	0.0%
	음악쇼	11.5%	13.6%	13.6%	13.6%	14.6%	15.0%	14.3%	17.1%	12.8%
	기타	69.2%	68.2%	68.2%	75.0%	81.7%	75.0%	82.1%	0.0%	76.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드라마	13.2%	14.1%	0.0%	15.9%	14.2%	15.6%	22.5%	55.1%	18.6%
	버라이어티쇼	16.2%	23.5%	13.0%	11.1%	10.4%	8.6%	13.9%	15.4%	12.8%
	애니메이션	27.9%	19.7%	40.9%	15.9%	14.2%	21.0%	25.0%	23.1%	20.9%
	영화	0.0%	2.8%	0.0%	0.0%	4.7%	0.0%	4.1%	6.4%	5.8%
	음악쇼	0.0%	0.0%	8.7%	6.3%	5.7%	4.7%	0.0%	0.0%	0.0%
	코미디쇼	0.0%	3.8%	0.0%	0.0%	0.0%	0.0%	0.0%	0.0%	0.0%
	퀴즈/게임쇼	0.0%	0.0%	2.9%	0.0%	0.0%	0.0%	0.0%	0.0%	0.0%
	기타	42.6%	36.2%	34.6%	50.8%	50.7%	50.2%	34.4%	0.0%	4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드라마	0.0%	0.0%	0.0%	0.0%	15.3%	15.3%	14.7%	54.4%	15.7%
	버라이어티쇼	0.0%	11.1%	0.0%	0.0%	0.0%	0.0%	7.4%	8.0%	7.9%
	스포츠	0.0%	0.0%	8.6%	0.0%	0.0%	0.0%	0.0%	0.8%	0.8%
	애니메이션	37.0%	18.5%	25.7%	22.0%	17.5%	17.5%	17.6%	19.2%	18.9%
	영화	6.2%	6.2%	0.0%	8.5%	7.3%	7.3%	7.4%	0.0%	7.9%
	음악쇼	6.2%	6.2%	7.1%	10.2%	8.8%	8.8%	8.8%	9.6%	9.4%
	코미디쇼	6.2%	13.6%	0.0%	8.5%	7.3%	7.3%	0.0%	0.0%	0.0%
	기타	44.4%	44.4%	58.6%	50.8%	43.8%	43.8%	44.1%	8.0%	39.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드라마	11.6%	13.4%	16.4%	16.4%	20.6%	23.9%	7.4%	36.7%	35.5%
	버라이어티쇼	1.9%	3.7%	5.1%	0.0%	11.1%	15.2%	20.2%	12.4%	11.8%
	애니메이션	41.9%	44.0%	38.5%	38.5%	30.6%	25.4%	30.7%	33.1%	38.5%
	음악쇼	4.7%	6.5%	6.2%	6.2%	6.7%	6.1%	7.4%	10.7%	7.1%
	코미디쇼	0.0%	0.0%	0.0%	5.1%	0.0%	1.0%	0.0%	7.1%	7.1%
	기타	40.0%	32.4%	33.8%	33.8%	31.1%	28.4%	34.4%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I-28〉 지상파TV의 오락 프로그램 심야시간대 편성 동향

채널	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KBS1	스포츠	0,0%	0,0%	0,0%	0,0%	0,0%	0,0%	0,0%	22,7%	0,0%
	영화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7,3%	100,0%
KBS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KBS2	드라마	20,6%	21,3%	39,7%	33,3%	36,5%	36,4%	42,6%	45,1%	15,2%
	버라이어티쇼	11,1%	11,5%	9,0%	19,2%	20,2%	26,2%	14,9%	7,3%	8,7%
	스포츠	0,0%	0,0%	0,0%	0,0%	6,7%	7,5%	8,5%	9,8%	8,7%
	영화	17,5%	21,3%	23,1%	29,5%	20,2%	15,0%	10,6%	13,4%	44,6%
	오락정보	0,0%	0,0%	0,0%	0,0%	0,0%	0,0%	6,4%	7,3%	6,5%
	음악쇼	33,3%	26,2%	10,3%	11,5%	9,6%	9,3%	10,6%	9,8%	8,7%
	코미디쇼	6,3%	8,2%	9,0%	0,0%	0,0%	5,6%	6,4%	7,3%	7,6%
	토크쇼	11,1%	11,5%	9,0%	6,4%	6,7%	0,0%	0,0%	0,0%	0,0%
KBS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BC	드라마	20,2%	10,2%	0,0%	20,5%	15,7%	14,8%	6,0%	8,5%	5,6%
	버라이어티쇼	9,2%	12,0%	22,2%	9,8%	9,9%	9,4%	9,4%	8,5%	8,8%
	스포츠	26,9%	20,4%	20,4%	21,4%	24,8%	18,0%	19,7%	17,7%	19,2%
	영화	35,3%	38,9%	38,9%	37,5%	35,5%	40,6%	43,6%	39,2%	42,4%
	오락정보	0,0%	0,0%	0,0%	0,0%	5,8%	8,6%	9,4%	16,2%	8,8%
	음악쇼	8,4%	9,3%	9,3%	10,7%	8,3%	8,6%	9,4%	10,0%	10,4%
	코미디쇼	0,0%	0,0%	9,3%	0,0%	0,0%	0,0%	2,6%	0,0%	0,0%
	토크쇼	0,0%	9,3%	0,0%	0,0%	0,0%	0,0%	0,0%	0,0%	4,8%
MBC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BS	드라마	0,0%	0,0%	15,3%	17,6%	16,3%	13,0%	12,0%	14,0%	3,0%
	버라이어티쇼	12,1%	53,0%	15,3%	17,6%	25,3%	31,2%	19,3%	30,9%	10,5%
	스포츠	15,9%	12,9%	29,4%	27,0%	30,1%	21,7%	28,0%	21,3%	31,6%
	영화	36,4%	22,0%	27,1%	29,7%	21,1%	25,4%	23,3%	25,7%	25,6%
	오락정보	0,0%	0,0%	7,1%	8,1%	7,2%	8,7%	8,0%	8,1%	8,3%
	토크쇼	35,5%	12,1%	5,9%	0,0%	0,0%	0,0%	9,3%	0,0%	21,1%
SBS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③ 요일별 누적 편성량 및 개편 시즌별 동향

오락 프로그램의 누적 편성량을 요일별로 나눠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에 편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경우 KBS1은 72.2%, KBS2 55.1%, MBC 61.5%, SBS 52.6% 등으로 나타났다.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은 KBS1 11.0%, KBS2 11.1%, SBS 15.1%로 나타났다. 애니메이션의 편성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KBS2는 12.5%, MBC 10.6%, SBS 17.7% 등으로 조사됐다. KBS1의 경우에는 음악쇼 프로그램에도 11.6% 정도 평일 편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신, 코미디쇼나 퀴즈/게임쇼, 토크쇼 등의 다른 장르에 편성비중이 거의 없었다.

〈표 III-29〉 평일 오락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합계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애니메이션	영화	오락정보	음악쇼	코미디쇼	퀴즈/게임쇼	토크쇼	기타	합계
KBS1	72.2%	11.0%	1.1%	0.0%	4.1%	0.0%	11.6%	0.0%	0.0%	0.0%	0.0%	100.0%
KBS2	55.1%	11.1%	0.6%	12.5%	4.6%	0.4%	4.8%	2.2%	2.1%	2.0%	4.7%	100.0%
MBC	61.5%	9.8%	4.9%	10.6%	2.1%	2.5%	7.9%	0.6%	0.0%	0.0%	0.0%	100.0%
SBS	52.6%	15.1%	7.7%	17.7%	4.6%	0.0%	0.3%	0.0%	0.0%	2.0%	0.0%	100.0%

※2000~2004 봄

반면, 2000년부터 9개 개편 시즌 동안의 주말 오락 편성을 보면, KBS1은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영화, 음악쇼 등에 높은 편성 비중을 보였다. KBS2는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등에 편성 비중이 높았으며, MBC는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영화 등에 편성 비중이 높았다. SBS는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의 편성량이 높았다.

주말과 평일의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동향의 차이점은 평일은 드라마의 편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주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KBS1 19.5%, KBS2 21.6%, MBC 24.7%, SBS 25.4% 등으로 평일보다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버라이어티쇼나 영화 등에 편성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주말 오락 프로그램 부문별 편성 동향 합계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스포츠	애니메이션	영화	오락정보	음악쇼	코미디쇼	퀴즈/게임쇼	토크쇼	기타	합계
KBS1	19.5%	2.0%	1.7%	4.8%	13.2%	0.0%	15.2%	0.0%	6.7%	0.0%	37.0%	100.0%
KBS2	21.6%	25.7%	2.7%	1.7%	8.6%	0.8%	11.1%	5.0%	0.0%	0.0%	22.8%	100.0%
MBC	24.7%	23.0%	4.5%	0.4%	16.8%	0.0%	4.1%	4.2%	1.2%	0.8%	20.3%	100.0%
SBS	25.4%	35.3%	2.6%	0.0%	6.7%	3.1%	5.6%	2.2%	0.0%	1.9%	17.1%	100.0%

※2000~2004 봄

한편, 요일별 편성 동향을 개편 시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4개 채널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KBS1은 평일 드라마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KBS2 역시 드라마의 편성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버라이어티쇼의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MBC와 SBS도

드라마의 편성 비중이 높았다.

주말의 경우에는 평일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 편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 외에도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과 영화의 편성 비중이 평일보다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 5. 결론

### 1) 분석 결과의 요약

2000 봄 개편 ~ 2004년 봄 개편까지의 지상파TV 편성 동향을 프로그램 부문별, 장르별 편성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본 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0~2004년 9개 개편 시즌 동안의 지상파TV 4개 채널의 프로그램 부문별 누적 편성량을 보면, KBS1은 교양, 보도, 오락, 다른 채널들은 오락, 교양, 보도의 순서로 편성 비중을 보였다. 같은 기간 편성 동향을 세부적으로 보면, KBS1은 교양, 보도, 오락의 고정 패턴이 지속되었고, KBS2는 오락, 교양, 보도의 순서로 편성 패턴을 보이다가 2003년 가을부터 교양의 비중이 높아져 2004년 봄에는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MBC는 부문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3년 봄부터 오락, 교양, 보도의 순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락과 교양간의 큰 차이는 없다. SBS는 오락이 점차 하락하고 교양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3년 봄부터 교양, 오락, 보도의 순서를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KBS1과 MBC는 고정적인 패턴을 보였으며, KBS2와 SBS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컸다.

둘째, 9개 시즌의 시간대별 누적 편성량과 동향을 보면, 오전시간대에는 교양과 보도 중심, 오후시간대에는 오락과 교양 중심, 주시청시간대에는 오락 중심, 심야시간대에는 오락 중심(KBS1 교양 중심)으로 고정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셋째, 요일별로 보면, 평일에는 교양과 오락의 비중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말에는 오락 중심의 편성 비중이 높아졌다. 이것은 9개 시즌 동안



(표 III-32) 지상파TV의 오락 프로그램 주말 편성 동향(계속)

채널	장르	2000		2001		2002		2003		2004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SBS	드라마	22.4%	18.9%	17.0%	17.5%	25.3%	22.1%	24.8%	42.0%	41.0%
	버라이어티쇼	32.2%	39.9%	39.0%	37.0%	39.6%	39.0%	26.3%	30.1%	33.3%
	스포츠	0.0%	0.0%	6.3%	6.5%	1.9%	1.9%	2.2%	1.7%	2.1%
	영화	7.0%	3.4%	6.3%	6.5%	7.1%	7.1%	8.0%	7.7%	7.3%
	오락정보	0.0%	0.0%	3.8%	3.9%	3.9%	3.9%	4.4%	3.8%	3.8%
	음악쇼	3.5%	4.7%	3.8%	3.9%	3.9%	3.9%	8.8%	10.5%	8.3%
	코미디쇼	0.0%	0.0%	0.0%	3.2%	0.0%	3.9%	5.1%	4.2%	4.2%
	토크쇼	4.9%	9.5%	3.1%	0.0%	0.0%	0.0%	0.0%	0.0%	0.0%
	기타	30.1%	23.6%	20.8%	21.4%	18.2%	18.2%	20.4%	0.0%	0.0%
SBS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넷째, 교양 프로그램을 생활교양, 오락교양, 문화교양, 시사교양, 교육교양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9개 시즌 누적 편성량에서는 생활교양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간대별로 교양 프로그램의 누적 편성량을 보면, 오전시간대의 경우에는 생활교양, 오후시간대는 생활교양과 교육교양, 주시청시간대에는 오락교양, 심야시간대에는 시사교양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었다. 요일별로 보면, 평일에는 생활교양 중심, 주말에는 생활교양과 오락교양, 시사교양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오락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나누어 9개 시즌 동안의 편성 동향 합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오전시간대에는 여성/주부 대상의 드라마 중심 편성, 오후시간대에는 유아/어린이 대상의 애니메이션 중심 편성, 주시청시간대에는 일반 대상의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 심야시간대에는 다른 시간대와 달리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가운데 영화와 스포츠, 드라마 장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패턴 역시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고정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방송은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 다양성과 균형성, 공익성 등의 편성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공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다양성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0~2004년 사이의 편성에서 나타난 편성 패턴에 대한 몇 가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교양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문화교양의 편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지상파TV의 문화교양 프로그램 편성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1과 KBS2의 경우에는 두 채널 가운데 적어도 한 채널은 오전시간대 생활교양 중심의 편성에서 문화교양 편성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여성, 주부의 문화 취향 개발과 반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성, 주부 대상의 프로그램이 항상 건강과 부동산, 가정경제 등 생활정보에 제한되기 보다는 오전시간대가 가진 특성을 고려해 여성, 주부 대상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편성으로 방송을 통한 여성 문

화의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영방송의 다양성이란 시청자의 취향 반영이라는 수동성에서 벗어나 문화적 취향의 다양성 창출이라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오락교양 프로그램의 편성을 줄여야 한다. 프로그램 포맷의 다양화는 시청자에게 다양한 포맷을 통해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시청률 경쟁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익성과 오락성은 반드시 별개의 것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각 장르의 내용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원칙이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형 프로그램 보다는 원 장르에 충실한 오락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의 개발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종 장르의 혼합보다는 원 장르에 충실한 소재와 포맷의 개발을 통해 교양 프로그램의 확대를 이뤄야 한다.

셋째, 주시청시간대의 편성 패턴이 고정화됨에 따라 MBC와 SBS는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이 주로 오락교양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시청률 경쟁의 또 다른 반영이라는 점에서 좀 더 과감한 교양 프로그램 편성이 요구된다. 공익성 오락 프로그램을 통한 경쟁 보다는 시청자의 문화적 취향을 개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시사 다큐멘터리 등의 교양 프로그램으로 주시청시간대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여전히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 등과 같은 소수 장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는 고착화된 편성 패턴으로 평일보다는 주말에, 다른 시간대보다는 주시청시간대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대별로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은 좋지만, 개별 시간대의 오락 프로그램의 장르 편중은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각 방송사가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 요일별로는 주말에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성 전략을 평일과 다른 시간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장르의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의 선택폭을 넓혀 주는 것은 방송 문화의 폭과 넓이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다섯째, 요일별, 시간대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채널 간 차별화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영방송 채널인 KBS2가 다른 채널과 유사한 편성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좀 더 과감하고 고정된 틀을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시청자들의 문화생활의 다양성 증가, 다매체·다채널화에 따른 매체 경쟁 심화 등의 요인은 지상파TV의 편성 전략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고정된 편성 패턴을 전환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강명철(2004), 방송편성 부분 평가방안, 방송위원회(2004), 『KI 도입기반 구축연구-방송평가 제 개선 연구팀 '편성 영역' 연구』
- 김 규a(1994), 『방송매체론』, 서울: 법문사
- 김 규b(1990), 방송편성개관, 방송학회 編(1990), 『방송편성론』, 서울: 나남
- 김 규 외(1991), 방송환경 변화와 편성의 특성화 방안 연구『방송 편성: 정책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 김우룡(1987), 『방송학강의』, 서울: 나남
- 김춘용(2001), 『디지털시대의 방송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남기(2004), 美, 선정성에 이어 폭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한국방송(2004. 7), 『해외방송정보』
- 안창현(2003), 일본: 방송 소유 규제는 총무성에서, 내용 규제는 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로, 한국방송(2003. 10), 『해외방송정보』
- 유의선(1995), 다매체 시대의 지상파방송 편성 정책, 방송문화진흥회 編(1995), 『다매체 시대의 방송편성정책』, 서울: 한올아카데미
- 유재천(1983), 프로그램 편성과 국민의 편익, 『방송연구』, 겨울호
- 유재천·한진만 외(2004),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성호(1998), 『시청률과 텔레비전 편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영목(1997), 『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용준(2003), 『주 5일 근무와 TV시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창섭(1987), 『한국방송론』, 서울: 나남
- 최창섭(1992), 『방송철학』, 서울: 대흥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3), 뉴스위치 보고서
- 한진만(2002), 텔레비전 편성의 결정 요인: MBC 2002년 봄 개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연구소 編, 『커뮤니케이션과학』, 21권 0호
- 한진만·박천일 외(2000), 『방송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홍기선 외(1998), 『현대 방송의 이해』, 서울: 나남

### 국내 저널

- 김기수(2004. 2), 외주 편성규제 문제점과 과제, 『방송문화』
- 윤성옥(2004. 2), 거꾸로 가는 편성규제 정책, 『방송문화』
- 이동후(2004. 6), 공익적 오락프로그램은 실패했다, 『신문과방송』
- 이재진(2004. 2.), 방송 편성 규제와 자유, 『방송문화』

『PD연합회보』(2004. 6. 23), 방송위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마련  
\_\_\_\_\_ (2004. 7. 14), 교양프로 편성비율 폐지 논란

국외 문헌

Howard, H. H., & Kievman, M. S.(1988), *Radio and TV programming*, Columbus, Ohio: Grid  
Publishing

